

British-American Culture Track

Course No.	Courses	Credit
ELC701	문화이론	3
ELC702	Psychoanalysis and Culture	3
ELC703	서사이론	3
ELC704	탈식민주의이론	3
ELC705	페미니즘과퀴어담론	3
ELC706	문학사상사	3
ELC707	퍼포먼스이론	3
ELC709	비평이론	3
ELC731	소설의발생과근대	3
ELC732	맑시즘과문학	3
ELC733	문학과모더니즘	3
ELC734	Literature and Postmodernism	3
ELC735	아시아계미국문학	3
ELC736	유토피아/디스토피아문학	3
ELC737	미국흑인문학	3
ELC738	영미비평의전통과수사학	3
ELC741	영언방문학과탈식민주의	3
ELC743	SF판타지서사연구	3
ELC744	멜로드라마와로맨스연구	3
ELC749	소수민소설	3
ELC751	역사와영화서사	3
ELC752	National Cinema	3
ELC753	디지털서사와문화	3
ELC754	공포서사연구	3
ELC755	애니메이션연구	3
ELC757	세계화와문화민주주의	3
ELC761	Asian Cultures in English	3
ELC762	문화이동과문화번역	3
ELC764	Popular Culture Issues 1	3
ELC765	Popular Culture Issues 2	3
ELC796	작가연구2	3
ELC831	작가연구1	3
ELC851	미디어컨버전스연구	3
ELC852	기술과시각문화	3
ELC853	테크노문화연구	3
ELC857	하위문화와소수문화	3
ELC858	욕체와섹슈얼리티	3
ELC895	포스트휴머니즘	3

Course Descriptions

• 문화이론 (Theories of Culture)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면적인 문화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인식한다. 또한 문화현상을 특정 이론

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한다.

Modern society consists of various cultures. Students are expected to recognize multifaceted cultural phenomena and view them from specific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modern subjects and structures of society in socio-economic and cultural terms. Students will learn about such theorists as Stuart Hall, Bourdieu, Adorno, Benjamin, Agamben, and Laura Mulvey.

- 정신분석학과문화 (Psychoanalysis and Culture)

이 과목은 문화적 현상을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Sigmund Freud, Jacques Lacan, Foucault 등의 이론을 심도 있게 배움으로써 영미문화권 사회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욕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cultural phenomena from psychoanalytic perspectives. We will study how British-American society is controlled by its members' desires in the forms of social ideologies and how cultural and political phenomena are the products of these desires. Students will read the works of Sigmund Freud, Jacques Lacan, and other theorists such as Foucault, who deals with medical history of the mental clinics.

- 서사이론 (Narrative Theory)

이 과목은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 다양한 장르에 편재하는 서사의 유형, 서술방식, 캐릭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서사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fundamental tenets of narrative theory and will study re-emergence of "story-telling" as important contemporary sociological phenomenon.

- 탈식민주의이론 (Postcolonial Theory)

이 과목의 목적은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가야트리 스피박의 포스트식민주의의 출현과 설립에 관한 기초적인 전제와 역사적인 배경을 배우는 것이다. 이 강의는 그 후 세계화와 관련하여 포스트식민주의의 현재 위치와 지속적 발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basic premise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st-colonial theories. Students will read the works of Edward Said, Homi Bhabha, and Gayatri Spivak. This course then will move on to the study of subsequent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post-colonial theory in relation to the emergence of globalization as a theoretical concept.

- 페미니즘과퀴어담론 (Feminism and Queer Discourses)

페미니즘과 퀴어 운동은 성별과 성적 지향의 차이를 사회적 차별의 대상과 불평등의 상징으로 바꾼 지배적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단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 과목은 그들의 기초적인 이론과 정치적 위치를 연구 이론을 읽음으로써 연구하고, 그들이 문화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할 것이다.

Feminism and the queer movement aim at transforming dominant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that have turned differences in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into the sign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is course will examine basic theoretical and political positions by reading representative theoretical works, and also study how they have affected cultural studies.

- 문학사상사 (History of Literary Theories)

이 과목은 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철학적 전통을 조사하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이 생성되는 예술을 연구할 것이다. 문학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는 고전 시, 수사학, 근대 신 비평,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정신분석학 비평과 마르크스 문학 이론의 범주에서 각각 다른 비평적 위치를 보인다.

This course aims at surveying the tradition of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literary texts and the art of producing them in the light of aesthetics. Aesthetic values of literary texts are considered in the different critical angles ranging from classical poetics and rhetoric to modern New Criticism, Structuralism & Post-structuralism, Psychoanalytic Criticism, and Marxist literary theories.

- 퍼포먼스이론 (Performance Theory)

리처드 셰크너, 빅터 터너, 주디스 버틀러 등 대표적인 퍼포먼스 이론가들의 사상과 이론을 통해 극장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연'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퍼포먼스와 문화정체성(인종, 젠더, 계급, 민족, 섹슈얼리티)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공연예술의 정치적 미학적 가치를 분석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works of seminal scholars in performance theory, such as Richard Schechner, Victor Turner, and Judith Butler. By examining various forms of “performance” that take place both inside and beyond theatrical spaces, we will look at relationships among performance and cultural identities(race, gender, class, nationality, sexuality), and analyze the political and aesthetic value of performance art forms.

- 비평이론 (Critical Theory)

이 수업에서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서를 비롯하여 비평이론과 연관된 다양한 글을 읽고 분석한다.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그에 도전하는 사회문화비평에 대해 배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read works by diverse scholars associated with critical theory and political philosophy, such as the works of Marx, Freud, and the Frankfurt School. We will study critiques of society and culture in order to analyze and challenge power structures and dominant ideologies.

- 소설의발생과근대 (Rise of the Novel and the Modernity)

이 과목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출현과 발전을 개인주체의 등장, 욕망과 감정의 발명, 경험주의와 사실주의, 독서 시장의 변동 등 근대성의 구조적 변동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Modernity is a term used to characterize Western society. The Western society invented the modern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based on its intellectual legacy of the Enlightenment. The Enlightenment phenomena also brought forth scientific innovations in the form of industrial revolution. These technological innovations allowed people to have more free time, which caused them to turn their attentions to their inner world and write diaries and novels.

- 맑시즘과문학 (Marxism and Literature)

이 과목은 문학 텍스트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람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접근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은 이러한 관계를 읽어내고 사람과 그들 밖의 구조와의 투쟁에 집중하여 읽어내는 도구이다. Georg Lukacs와 칼 마르크스는 영미 문학에서 사람들의 계급적 의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pproach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Marxism. Marxism is a useful to approach the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Marxist perspectives are schematic tools to view these relations and 새 focus on how literature reflects the humans' struggles with institutions outside them. Georg Lukacs and Karl Marx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class consciousness of characters in British-American literature.

- 문학과모더니즘 (Literature and Modernism)

근대 예술가들은 현실의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였다. 이 강의는 이성에 중점을 두고 현실을 거부한 근대주의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의 시도를 현실의 일부인 꿈과 판타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강의에서 모더니스트가 사용한 기술들, 다양한 시점, 의식의 흐름, 몽타주, 콜라주, 병렬을 평가할 것이다.

Modernist artists made an attempt to disrupt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of reality. This course will offer a picture of the modernists who rejected the reality based upon rationality and drew their attention to fantasy and dream as part of the reality. This course will examine modernist narrative techniques, such as multiple points of view, stream of consciousness, montage, collage, and juxtaposition.

- 문학과포스트모더니즘 (Literature and Postmodernism)

이 강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학을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포스트모던 비평적 접근은 독자의 단순 반응부터 해체까지의 범주인데, 이는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에 적용된다. 특히 문학텍스트의 저자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과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nalyze literature since World War II from the perspective of postmodern epistemology. Postmodern critical approaches ranging from reader-response to deconstruction are applied in interpreting literary texts, in particular, questioning the authorship of a literary text and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 아시아계미국문학 (Asian American Literature)

이 강의는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대표작들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ying historical developments of Asian American literature including its major writers and works.

- 유토피아-디스토피아문학 (Utopian and Dystopian Fiction)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픽션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과 그것이 현실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관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 강의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픽션에 나타나는 풍자적 요소를 비판적 심문대에 올릴 것이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픽션에는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같은 다양한 하위 장르가 있다. 이 강좌는 현대 비평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픽션과 연관된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논의할 것이다.

Utopian and dystopian fiction deals with a vision of an ideal society and the ironic reality of its nowhere. This course puts on the critical stage satirical elements in utopian and dystopian fiction. Utopian and dystopian fiction has various subgenres such as eco- or feminist uto/dystopian fictions. This course will apply contemporary critical theories to analyze various sociopolitical issues in utopian and dystopian fictions.

- 미국흑인문학 (Afro-American Literature)

미국문학은 나다니엘 호손이나 허만 멜빌 같은 백인 작가들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리처드 라이트와 토니 모리슨 같은 흑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 강의는 미국 흑인 작가들의 작품과 그 역사적 전개양상을 이해하고, 이들 인종적 소수자의 관점으로 미국 사회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merican literature is composed of writings by black writers such as Richard Wright, Toni Morrison as well as white writers such as Nathaniel Hawthorne and Herman Melville.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Afro-American literature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observe American society through the perspectives of racial minorities.

- 영미비평의 전통과 수사학 (British-American Critical Tradition and Rhetoric)

언어로 쓰여진 모든 것은 수사적이다. 이 강의는 영미 비평을 수사연구, 독창성, 다른 언어 연구의 관점에서 보도록 설계되었다. 신비평이론부터 시작하여 다른 이론적 시점까지 연구될 것이다. 여기에는 자크 데리다의 포스트구조주의와 같은 연에 관한 이론도 포함된다.

Everything written in language is rhetoric. This course is designed to analyze British-American criticism in terms of rhetoric, specifically, in terms of theories of language. Starting from New Criticism, this seminar will study other theoretical perspectives dealing with language, for example, theories of Jacques Derrida and other poststructuralists.

- 영연방문학과탈식민주의 (Commonwealth Literature and Postcolonial Theory)

영연방 지역에서 쓰여진 주요 문학 작품들을 후기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major literary works coming from Anglo-phone Commonwealth countries, or major works written in English outside of England and America,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theory. Countries include Canada, South Africa, Anglo-phone Caribbean countries, Australia, and India.

- SF 판타지서사연구 (SF Fantasy and Narrative)

오늘날의 기술의 발달은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가 적어도 미디어 문화에서는 평범한 현상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이 강의는 SF 판타지를 연구하고 이러한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고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독창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는지 연구할 것이다. 아서.C.클라크, 필립.K.딕, 사무엘 델라니 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포스트-휴먼 사회라고 불리는 현재 기술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made cyborgs and androids not special but mundane everyday phenomena at least in media cultur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SF Fantasy in novels and how these novels are written and deliver thematic ideas via their unique narratives. Students will read such authors as Arthur C. Clarke, Phillip K. Dick, and Samuel Delany,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echnological society, which is often called a post-human society.

- 멜로드라마와 로맨스연구 (Melodrama and Romance)

멜로드라마와 로맨스는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요 스토리 라인으로 취하면서 대중들의 격한 감정을 유발시켜 온 대표적인 대중서사 장르로서 그 주요 소비자는 여성들이었다. 이 과목은 멜로드라마와 로맨스의 장르적 특징과 그 역사적 변화를 여성의 욕망과 연관지어 살펴볼 것이다.

Melodrama and romance have served as two narrative forms that satisfy female audiences' psychological need most well. This course will analyze their generic features and historical changes in relation to the desires of female audiences.

- 소수민소설 (A Study of Minority Literature)

마이너리티 문학은 마이너리티가 그들의 토착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정서를 그들만의 언어가 아닌 영어, 독일어, 불어나 다른 유럽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강의는 마이너리티가 되는 경험을 다수의 문화, 정치적, 사회적 전형을 흉내 내는 것으로 체제전복적으로 흉내 낸 것을 조사할 것이다.

Minority literature presents the way in which a minority reveals their own aboriginal, underprivileged, or alienated sentiment not by their minority language but a major language such as English, German, French and any other major European languages. This course examines the experience of 'becoming minor' subversively mimicking a majority's unquestioned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stereotypes.

- 역사와영화서사 (History and Film Narrative)

역사기록학의 전통적인 아이디어나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역사는 이전에는 배제된 요소들, 기억, 향수, 기록 사이의 구멍이나 유령 같은 존재들까지 그 경계를 넓혔다. 이 강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역사가 영화적 매체를 통해 대표하고 재연한 비평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이슈들을 생각해볼 것이다. 다른 토론거리들은 어떻게 현실이 시각 매체에서 재현되는지, 역사를 쓰는 것에 있어 객관성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역사 영화가 어떻게 기존에 글로 쓰여졌던 역사를 묘사하는지와 같은 것들이다.

As traditional ideas and methodologies of historiography are brought into question, history has expanded its borders to incorporate formerly excluded elements, such as memory, testimony, nostalgia, gaps in the archive, and spectral presences. This course will reconsider these topics, and also think about the critical, social, cultural, and ethical issues that arise when history is represented or reenacted through the cinematic medium. Other issues to be discussed include how reality is represented in visual media, whether it is possible to retain an "objective" perspective in writing history, and how historical films can depict those who have been formerly written out of history.

- 내셔널시네마 (National Cinema)

영화학자와 비평가들은 종종 내셔널 시네마라는 테두리 안에서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영화를 묘사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정의와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이 강의는 내셔널시네마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민족성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것이다.

Film scholars and critics often use the term "national cinema" to describe a group of films produced by a particular nation, even as they continue to debate its definition and the necessity of assigning films with a specific national identity. This course will examine various ways to define national cinema(i.e., in economic, industrial, cultural, historical, geographical terms), and study how the notion of nationhood is still relevant today, despite the rise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s in film industries.

- 디지털시대의문화와서사 (Digital Narrative and Culture)

이 과목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이 인간주체의 자기이해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포함하여 현대문화 전반에 일으킨 광범위한 변화를 연구할 것이다. 특히 다매체, 쌍방향성의 특징을 갖는 디지털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다.

This course will explore how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has brought about comprehensive changes in contemporary modes of storytelling,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We will als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narratives and various media formats, and particularly focus on new possibilities emerging in multimedia storytelling, as well as innovative forms of non-linear and interactive digital narratives.

- 공포서사연구 (Studies on Horror)

공포서사는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적 공포와 불안을 표현해온 서사양식으로 주체가 성적, 인종적 타자들과 맺는 낯설고 불안한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장치로 기능해왔다. 이 과목은 정신분석학, 젠더이론, 탈식민주의 등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여 공포서사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읽어내고자 한다.

Horror is a narrative form seeking to elicit a negative emotional reaction from readers/viewers by playing on their primal fears. What elicits fears are not only psychological but also social; they are related with sexual, racial, class others exceeding the subject's social and symbolic order, which often appear in displaced forms such as ghosts, monsters, zombies, aliens, and vampires. This course explores the socio-political effects and functions of horror narrative from the perspectives of psychoanalysis, gender theories, and postcolonialism.

- 애니메이션연구 (Understanding Animation)

이 강의의 목적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이해하고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이 근대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animation and its relation to modernity in terms of popular culture.

- 세계화와문화민주주의 (Globalization and Cultural Democracy)

세계화의 이론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세계화를 통한 문화적 평등에 대해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ory and phenomenon of global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democracy through globalization. Students will also examine cultural instances of globalization overseas and in Korea.

- 아시아영어권문화연구 (Asian Cultures in English)

아시아영어권 문화와 문학, 아시아의 현대 문화와 문학을 서구사회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Asia" as a region and concept in its relation to the West. One thread of study is Asian American literature/culture and another thread is contemporary literature/culture from Asia in relation to the West.

- 문화이동과문화번역 (Studies on Cultural Translation and Trans-Cultural Literature)

문화이동의 이론과 관련하여 Walter Benjamin과 Naoki Sakai의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Teresa Hakkyung Cha의 *Dictee*에 대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 Korean context에서의 문화이동의 예시들을 서구문화, 특히 America 문화와 연관지어 탐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Cultural Translation as concept and practice. We will study theory of translation of Walter Benjamin and theory of cultural translation of Naoki Sakai and will read Teresa Hakkyung Cha's *Dictee* as its example. We will then explore instances of cultural translation in Korean cultural and intellectual history in relation to the West, especially America.

- 대중문화위크숍1 (Popular Culture Issues 1)

이 과목은 대중문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roach the cultural forms through theoretical frameworks,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points to analyze the formal logic of cultural issues.

- 대중문화위크숍2 (Popular Culture Issues 2)

이 과목은 대중문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roach the cultural forms through theoretical frameworks,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points to analyze the formal logic of cultural issues.

- 작가연구2 (Studies on British and American Authors II)

작가연구1의 연장선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ad the works by a particular author. One of the benefits fro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major works by an author is to reach the profound knowledge of the author's literary style, theme, and symbolism, tracking down the mainstream of his/her literary thoughts.

- 작가연구1 (Studies on British and American Authors I)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읽고, 작가의 문학적 스타일, 테마를 분석·연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ad the works by a particular author. One of the benefits fro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major works by an author is to reach the profound knowledge of the author's literary style, theme, and symbolism, tracking down the mainstream of his/her literary thoughts.

- 미디어컨버전스연구 (Studies on Media Convergence)

디지털 기술은 방송, 영화, 모바일 기기 등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온 매체들 사이에 융합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통해 문화콘텐츠는 여러 매체창구를 이동하며 새로운 독자에게 새로운 의미질서를 만들어내면서 부가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런 매체 융합현상이 대중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Digital technologies are bringing about a convergence among different media(e.g., broadcast media, film, mobile technologies). This new cultural phenomenon called "media convergence" enables cultural content to move across multiple media forms and texts, generates a considerable amount of revenue in ancillary markets, and also creates new ways of

consuming media. This course will examine how media convergence is changing mode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in popular culture.

- 기술과 시각문화 (Technology and Visual Culture)

테크놀로지와 시각문화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영화와 미디어 발전역사와 기술 혁신의 연관성, TV, VHS, digital media와 같은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시각문화와 기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른 미디어 텍스트, 문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This course aims to examin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visual culture. We will begin with a survey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throughout film and media history, and then move on to explore how the development of other types of media(TV, VHS, digital media) affected techniques and cultures of visual media. In this class, we will examine how technology brings about changes in media texts, cultures, and industries, and also study relationships among various types of media.

- 테크노문화연구 (Studies on Technocultures)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테크놀로지가 대중문화에 대한 기억과 technophilia, technophobia, techno-savvy와 같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또한 시각매체와 관련하여 테크놀로지의 입지, 민주주의, 권능, 혁명과의 융합에 대해 연구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role technology plays in societ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ow it affects various forms of popular culture. This course will examin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echnology in popular perception(technophilia, technophobia, techno-savvy, etc.), and analyze the discursive intersections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a. We will also study how technology is depicted and deployed in popular forms of visual media, and how it is often conflated with concepts such as democracy, empowerment, and revolution.

- 하위문화와 소수문화 (Studies on Subculture and Minority Culture)

다양한 형태로서의 하위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subculture is a group of people within a culture that differentiates themselves from the larger culture to which they belong, and the cultures they adopt for expressing their group identities. This course will study various forms of subcultures, including urban and sexual ones, and their complex relationship with mainstream culture.

- 육체와 섹슈얼리티 (Body and Sexuality)

인간의 몸은 인간 문화와 삶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인간의 몸을 통해 사회적 의미들이 생산되고, 전달된다. 이전에 억압되었던 섹슈얼리티는 현대 소비문화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강의를 통해 인간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며, 현대 사회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연구한다. The body has not been dealt with as a rightful subject of cultural studies, although it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and culture. The body is not just a material given but cultural representations in which social meanings are invested, negotiated, and transformed. Specifically sexual body, marginalized and repressed by rational discourses, is what contemporary consumer culture most ardently takes advantage of. This course examines how the human body and sexuality are imagined, perceived, interpreted, and represented in contemporary society. Various body discipline apparatuses such as diet and body maintenance, and capitalist body industry will be studied.

- 포스트휴머니즘 (Posthumanism)

기후 위기와 기술문명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 범주의 자명성과 인간 중심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대해 급진적 질문을 던지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여러 경향들을 살펴보고, 이런 경향들이 문화의 여러 층위에 일으키는 변화의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The climate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are pushing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and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self-evidence and centrality of the category of "the human." This course aims to examine the various trends of posthumanism that pose radical questions about the boundaries between the human and the non-human,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changes that these tendencies make at various levels of culture.